

# 순천 낙안읍성 민속문화축제 열린다

다음달 3일부터 3일간

백중놀이·성곽쌓기·수문장 교대

조선시대 체험 다양한 행사

'제29회 순천 낙안읍성 민속문화축제'가 내달 3일부터 3일간 순천 낙안읍성에서 열린다.

순천시에 따르면 순천 낙안읍성의 역사성을 다양한 문화예술로 재현하기 위해 낙안읍성 민속문화축제를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조선으로 떠나는 시간여행, 낙안읍성에 물들다'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축제는 조선시대를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할 예정이다.

축제 개막식은 3일 오후 2시 30분부터 식전 공연인 육군 31사단 군악대 행진, 낙안군수 부임행렬, 대북치기 퍼포먼스의 식전행사에 이어 개막선언, 개막주제공연 낙안읍성의 탄생 순으로 진행된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전통민속문화를 재현하는 백중놀이, 성곽쌓기, 수문장 교대식, 기마장군 순라의식, 전통혼례, 판소리, 가야금 병창, 창극 '김빈길 장군' 등이 준비돼 있으며, 플래시몹 퍼전시 대극, 조선마술사, 시립합창단 등 다양한 공연도 포함돼 있다.



지난해 민속문화축제에서 재현된 백중놀이 모습.

또한 민속놀이 경연대회, 장사 씨름대회, 큰줄 다리기 등 참여 프로그램과 먹거리 및 체험 부스가 운영된다. 동문 입구 버스킹 공연, 스탬프 인증 활동 등 읍성 내·외부에서 축제를 즐길 수 있다.

특히 조선시대 캐릭터 분장을 한 배우들이 읍성 내부 여러 장소에서 '생생 낙안읍성 캐릭터 퍼포

먼스'를 진행하며, 관광객들과 함께 즐기는 축제 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순천 낙안읍성 누리집을 참고하거나 낙안읍성지원사업소 관리팀(061-749-8840)으로 문의하면 된다.

/순천=김은주 기자 ejkim@kwangju.co.kr

## 올 벼 경영안정대책비

### 광양시, 91억3천만원 지급

광양시가 벼 농가 소득보전을 위한 경영안정대책비로 91억3000여만원을 지급키로 했다.

광양시는 전남도 내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 농지에서 1000㎡ 이상 직접 벼를 재배하고 광양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벼 경영안정대책비를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올해는 지원 대상에 논 타작물 재배지원 사업 참여 농지 및 벼 재배면적 감축 협약 농지도 포함시킬 계획이다.

다만 공무원 및 2023년도 농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원 이상이거나, 벼 경작면적이 0.1ha(1000㎡) 미만인 경우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벼 경영안정대책비는 농가별 2ha 한도로 경작 규모에 따라 직불금 방식으로 지급한다. 지원 희망 농가는 내달 25일까지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 벼 경작 농지 내역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한편 지난해 벼 경영안정대책비를 지원받지 않았던 농지를 신청하는 농가는 해당 사항을 신청서에 기재하고 별도로 경작사실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시는 대상자 적격 여부 검토 후 재배면적에 따라 지급단가를 책정해 경영안정대책비를 농가별 계좌로 지급할 방침이다.

우미자 광양시 스마트에과장은 "벼 경영안정대책비가 쌀값 하락과 병충해 피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벼 재배 농가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구례군농업기술센터가 지난 22일 지역농산물을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진행한 '팜파티'를 열었다.

## 팜파티 마친 구례군 "직거래 확대 적극 지원"

### 지역농산물 가공 제품 등 인기

"이번 팜파티 행사는 도시의 소비자들 지역 농산물을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는 직거래 장터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 앞으로도 구례군은 타 지역 소비자들 구례 특산물을 지속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

지난 22일 지리산 농부마을 농장에서 열린 '팜파티' 행사를 마치고 김순호 구례군수는 직거래 확대를 위한 아낌없는 지원을 약속했다.

'팜파티'란 농장을 의미하는 팜(Farm)과 파티(Party)의 합성어로, 생산자와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해 지역의 농산물을 안심하고 지속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교류 여건을 마련하는 행사다.

구례군농업기술센터가 주최하고 지리산농부마을이 주관한 이번 행사에서 학생과 관광객 등 130여명의 참여자들은 다양한 체험활동과 퍼포먼스 등을 통해 팜파티의 진미를 느끼는 유익한 시간을 가졌다.

이번 행사는 ▲밤 따기 및 밤 줍기 체험 ▲밤을 활용한 음식 즐기기(내 손으로 밤 굽기) ▲크로키와 핸드페인팅 ▲밤 가공품 전시 상품 홍보 ▲해금 클래식 공연 ▲SNS(사회적관계망서비스) 홍보 답례품 지급 등이 진행됐다.

행사 관계자는 "이번 행사에서 전시된 농산물 가공 상품 가운데 밤잼·매실청·돌베 도라지 스틱 등은 뛰어난 맛뿐만 아니라 편리한 포장으로 큰 인기를 끌었다"고 밝혔다.

/구례=이진택 기자 lit@kwangju.co.kr

## 여수시 '시내버스 무정차 제로' 캠페인

### 운수종사자 등 100여명 참여

여수시가 시내버스 무정차 근절 캠페인을 펼쳐며 승객들의 불편 최소화에 나섰다.

여수시에 따르면 지난 26일 오전 쌍봉사거리 일원에서 정기명 시장을 비롯해 시내버스 3개 업체 운수종사자와 모범운전자연합회 관계 공무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내버스 무정차 제로(ZERO)화' 캠페인을 펼쳤다.

이번 캠페인은 올해 초부터 추진한 시내버스 급

출발·급제동 근절 캠페인에 이은 두 번째 운동으로, 버스 정류소에 승객이 있는 경우 무조건 정차하여 승객의 불편이 없도록 하자는 취지로 시행됐다.

한편 여수시는 난폭운전 등 고질적인 시내버스 불편 민원 해소를 위해 지난해부터 분기마다 주별·장소별 캠페인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캠페인 시행 전후 버스 운송업체의 운행 기록을 자체 분석한 결과, 급출발·급제동 건수가 대당 4.7건에서 3.8건으로 약 19%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수=김창화 기자·동부취재본부장 chkim@

## 보성읍민 1000여명 참여 화합 한마당 잔치

### 읍민의 날 행사 성료

보성군은 보성읍민회(회장 김재균)가 주관한 '제14회 보성읍민의 날'이 주민들의 호응 속에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보성읍민의 날'은 보성군의 행정중심지인 보성읍의 8500여명 읍민들이 화합을 이루고 나아가 군 발전에 활력을 불어넣는 지역축제이며, 격년제로 열리고 있다.

보성읍민회 주관으로 지난 25일 보성 공설운동장에서 열린 이번 '보성읍민의 날'은 1000여명의 주민이 참여한 가운데 흥겨운 화합 한마당 잔치를 펼쳤다.

이날 행사는 식전공연, 퍼포먼스, 기념식, 어울림마당, 노래자랑, 축하공연, 경품추첨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김철우 보성군수 등이 지난 25일 보성 공설운동장에서 열린 제14회 보성읍민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 화합을 점화하고 있다. <보성군 제공>

특히 읍민 화합과 지역발전의 염원을 담은 봉화점화 퍼포먼스가 축제 분위기를 고조시켰으며, 지역 출신 각설이·가수 등의 다채로운 볼거리 공연과 향토 먹거리도 호응을 얻었다.

/보성=김용백 기자 kyb@kwangju.co.kr

## 곡성 할머니들 출연 '심청길 비밀레시피' 공연

### 다음달 3~6일...동악아트홀

### 문체부 공모 지역 맞춤형 연극

곡성지역 할머니들이 직접 출연해 만든 음식을 관객과 함께 나누며 소통하는 지역맞춤형 연극이 내달 막을 올린다.

곡성군은 연극 '심청길 비밀레시피'가 다음달 3일부터 6일까지 곡성 레저문화센터 동악아트홀에서 공연된다고 밝혔다.

'심청길 비밀레시피'는 문화체육관광부의 공모사업인 '2024 지역맞춤형 중소규모 콘텐츠 유통지원사업'으로 선정된 작품이며, 예술경영지원센터가 주최하고 곡성군·곡단마을이 주관하고 있다. 2022년 초연 당시 전국 관객들의 호평을 받았던 이 작품은 이번에 새로운 형태로 관객들을 맞이한다.

이번 공연은 기차 여행 분위기로 무대를 꾸몄으며, 무대 영상과 음향을 통해 관객들이 곡성 기차마을과 심청강의 아름다운 풍경을 실감나게 체험할 수 있도록 연출됐다.

'심청길 비밀레시피'는 손혜정 대표가 곡성 할머니들과 나눈 일상 속 이야기를 바탕으로 제작되었다. 손 대표는 "이번 공연은 할머니들의 삶의 이야기를 소재로 삼았으며, 곡성 지역 할머니들이 직접 출연하여 그들의 음식과 일상을 재현함으로써 관객들과 깊이 소통하는 작품"이라고 설명했다.

이 공연의 특징은 관객들이 할머니들이 직접 만든 음식을 함께 나누며 공연의 주제를 더욱 깊이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곡성 특산물인 백세미·흑돼지·배추 등을 활용한 음식을 맛보며, 관객들은 곡성의 정서와 문화 그리고 맛까지도 함께 느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곡성군 관계자는 "이번 공연을 통해 관객들이 곡성만의 매력을 깊이 느끼고 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연 관람료는 전석 3만원이며, 초등학생 이상(만 7세 이상)이 관람할 수 있다.

곡성군민의 경우에는 거주지 주소 확인 후 6000원에 관람할 수 있는 특별 할인이 적용된다. /곡성=김대성 기자 bigkim2@kwangju.co.kr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 240326-중-166833호]

[광고]

## 허리 통증이 심할때는

# 첨단우리병원



## 허리 디스크 협착증

미세현미경 수술  
척추 내시경 수술  
고주파 수핵 감압술  
척추 유합술

튼튼한 척추 튼튼한 관절  
**첨단우리병원**

대표전화. 970-6000  
광주과학기술원 / 호수공원 앞

## 신협이 활짝 피었습니다

든든한 금융의 힘으로  
따뜻한 협동의 힘으로  
당신을 평생 어부바 하겠습니다



평생 어부바  
**신협**